

古美術에 있어서의 韓國的 性格(幻燈使用)

金 元 龍

서울大學校文理大教授

韓國古美術에 있어서의 韓國的인 性格은 三國時代부터 問題삼을 수 있으나 韓國古美術의 性格形成에 있어서 時代的으로는 新羅統一期에서 理想主義的 自然主義라는 基本型이 成立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地域的으로 볼때 南韓에 뿌리박은 先史時代 以來의 所謂 韓族社會가 그 基盤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新羅의 滅亡과 함께 政治의 中心이 中部韓國으로 移動됨에 따라 從來의 南韓中心美術에 새로이 中部 以北의 要素가 加味되어 高麗初의 美術에는 새로운 힘이 賦與되고 있으나 佛敎 自體의 一種의 貴族化와 함께 外面的인 技巧에 置重하게 되고 十二世紀 頃까지의 高麗的인 內面的 世界는 時代가 내려오면서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高麗中期以後의 만네리즘을 打破하고 從來의 宗教美術에서 벗어나 가장 率直하게 自己들의 美意識이나 美觀을 表現具形하였고 또 따라서 아무런 制約을 받지 않고 作品을 制作한 것이 李朝의 美術人들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李朝의 美術에서 가장 韓國的인 性格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時代와 地域을 統合한 하나의 完成된 韓國의 型(패턴)을 認識할 수 있다. 이것은 李朝時代에 와서 韓國民族의 文字가 처음으로 發明되었는 事實과 連關되어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며 이 둘은 實은 같은 歷史的인 基盤위에 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誤解해서 안될것은 李朝의 美術이 하나의 韓國的인 型을 이루었다고 해서 李朝의 美術이 美術 그 自體의 觀點에서 다른 어느 前代의 것보다 前進하고 優秀하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여기서 問題삼고 있는 것

은 다만 그 바탕을 흐르고 있는 性格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李朝의 美術을 通觀해서 우리는 韓國美術의 根本理念인 自然主義가 新羅來以로 健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結果的으로 抽象的이거나 表現主義的인 點이 있다 하여도 李朝人들의 「어프로오취」는 어디까지는 自然主義的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中國이나 日本의 美術에 比해 線이나 面, 그리고 色이 모두 부드러워지고 있다. 李朝人들은 모든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現實的인 自然속에 局限하려고 하며 그 世界나마 될수있으면 面積을 주리고 自己 自身이 平和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自己의 世界 속에 滿足하려고 한다. 中國人의 想像的인 無限한 宇宙와는 確實히 다른 世界다. 이것은 陶磁器의 形이나 繪畫같은 데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美術은 언제나 따뜻하고 平和로운 人間味가 있다. 이것은 韓國人들의 人生觀이나 世界觀과 直結되고 있는 것이다.

李朝人들은 作品속에서 自己를 主張하지 않는다. 自己의 能力이나 意思를 誇示하기 위한 誇張·變形技巧 같은 人工的面을 내 세우지 않으며 될 수 있으면 裝飾性은 不純한 것이라고 排擊하여 버린다. 이것은 아마 儒者思想의 影響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李朝人들의 潔癖은 儒教精神만으로 解釋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何如튼 이러한 李朝人들의 潔癖은 作品의 面·線·色 등을 集約 節約하면서 材料가 가지는 本來의 美를 살리려는 結果로 反映된다. 이러한 本質的인 美의 追求, 人爲의 美에 對한 嫌惡는 李朝의 工藝에서 가장 鮮明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陶磁器에서도 잘 表示되어 있다.

日本人 柳宗悅은 李朝工藝의 美를 思考以前, 造作以前의 것이라고 評하고 있다. 말하자면 李朝人들의 美는 美를 意識的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人爲的作業의 結果가 아니고 그런것 以前에 存在하는 「自然의 美」라는 것이다. 이러한 李朝工藝의 性格은 李朝人들이 自己가 살고 있는

現實的 世界에 完全一致 融化되고 自然의 한 成分으로 살아가며 거기에 서 우러나오는 美意識이라 할까 感情을 率直하고 아무 私心없이 發露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童心の 世界와도 같은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李朝의 工藝品과 對하고 있으면 언제나 私心없는 微笑를 禁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李朝的인, 換言하면 가장 뚜렷하게 韓國的인 우리古美術의 性格을 彫刻·繪畫·陶磁 其他의 分野에 걸쳐서 實物을 通해 檢討 說明하여볼까 한다.